

## 즐거웠던 소요산 산행

- 아름다운 천연색 자연을 찾아서 -

李 珍 淑 (會社員)

참으로 오랫동안의 산행인것 같다.

무르익은 가을의 산행, 그 순수한 자연과 호호하며 마음껏 심취하려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같이 있기만 하여도 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무것도 바램이 없이 통통거리는 들뜬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의정부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보양계 서린 차창을 손가락으로 비집어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스쳐가는 도시의 온갖 존재들을 펼쳐 버리며 멀어져 간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흥분에 쌓이게 하는 것일까?

감흥에 젖어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동요도 아랑곳 없이 누구의 제의도 없이 이내 악보와 곡들을 들춰 가며 노래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들이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중점이예요. 내리세요”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새 버스는 중점에 도착해 있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서 버스를 내려 접어든 소요산 입구. 정류장에서 산입구까지는 꽤 멀었지만 길옆의 작고 큰 나무들의 형용키 어려운 여러가지 색깔들에 멀리 보이는 웅장한 산봉우리. 기암괴석들.

자연에 도취되어 꿈같은 애착에 사로잡힘을 어찌할 수 없다. 아-유화! 저것은 한쪽의 유화다. 나는 감격하고 싶은 작은 충동에 사로 잡힌다. 어찌 이다지도 다를까. 평소에도 보는 나무, 풀, 바위 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저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차분하고 아름다울까. 그리고 앞의 죽뻗은 아스팔트 까지도 짙은 회색으로 세련되게 조화되어 있지 않은가. 게다가 순간순간 통통튀기는 유모어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가 있지 않은가

이순간 아무것도 부러운게 없다.

아- 행복하다 라고 감히 뇌어본다. 2km 정도를 걸어들어가니 소요산 입구가 나온다. 입구 정면에는 사찰→정상코스과 등산로→정상코스가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다. 사찰행을 택하자는 의견일치로 왼쪽길을 따라 올라갔다. 오르막 계단을 걸어올라가니 갑자기 길이 끊긴다. 당황하여 둘러보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몇번이고 내림길과 오름길을 타고 걷다보니 어느새 사찰에 다달았다. 경내의 경건함에 마음을 가라 앉히고 돌아보니 앞마당끝에 내리쬐히는 폭포수가 난간밑으로 아찔하다. 폭포위의 커다란 바위와 그바위 밑의 커다란 석굴 법당의 불상은 과연 은은한 불경의 경지로 나를 한동안 세속에서 건져낸다. 세상의 모든것을 해탈한 석가의 자애로운 미소가 고뇌하는 인간에게 자비로움을 일깨워 주는것 같다.

“너희가 그렇게도 찾아 헤메이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묻는것 같아서 팬시리 가슴이 뜨끔해 온다.돌 돌아서자 어차피 모두를 소유할수도, 모두를 잃을수도 없는것이 아닌가. 다만 존재함과 더 중요한 선이 있을뿐이 아닌가?

법당을 나와 뒷길로 돌아오르는데 여기서 부터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이다. 70°~80°쯤되는 경사 같다. 깽깽거리는 친구와 나는 몇걸음을 지탱하지도 못해서 쉬고 또 쉬며 오른다.

2시간쯤의 등반도중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공복감에 사기가 떨어져 아무렇게나 사지를 늘어뜨리고 앉는곳이 내자리라더니 자리를 선택할 여지도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친구가 만돌린을 꺼낸다. 트로이카가 울리고 어메이진그레이스가 울리고 가스펠송이 나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 과일을 깎아서 목을 축였다.

음악과 과일에 생기를 얻어 다시 출발을 서둘렀다. 상당히 험한 산이다. 거의 바위로 이루어져 올라가는데 꽤나 힘이든다. 가다가 위를보고 저봉우리에 올라서면 정상이었지 싶은 봉우리가 초조감을 달래며 올라서면 신기루같이 또 봉우리가 앞을 막는것이 아닌가.

속기(?)를 몇번이고 하다가 올라선곳은 평평한 동산이 아닌가. 옆에는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죽 늘어서 있고 그쪽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나왔다.

여기서 풀자.

아니야 조금만 더 올라가봐.

라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걸어올라가는데 가도가도 등산뿐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입구의 안내판에 등산로 → 정상코스, 사찰→정상코스 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아 -그래. 정상은 길고 길구나. 이길을 따라가면 다시 내려가게 되고 결국 입구가 나오겠군.

앞에 보이는 정상. 뒤에 보이는 정상, 꼭 반쯤되는 거리이다. 갑자기 막연해진다. 계다가 장비를 풀려고 주위를 살펴보니 물길이 없다.

아까 도중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던 등산객들이 생각났다. 그래! 위에 물이 없으니 올라오는 등산객은 식수를 가지고 올라왔구나. 그것도 모르고 우린 의아해 하며 식수통도 없이 정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후후후 위대한 실수여!

우리의 배고픔이여!

실수가를 부르며 하릴없이 계곡을 타고 내려왔다. 내리막길은 참으로 부담없고 재미있다. 등산화의 편함으로 죽 미끄럼타도 괜찮고 함부로 뛰어내려도 괜찮고 그리고 계곡을 타고 내려올때는 등산객

이 거의 없이 우리들 뿐이다.

호젓하고 편해져서 마음놓고 뛰어내렸다가 갑자기 주르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앉았는데 발 밑에 이름모를 나무가 빨강게 물들은채 바위에 손을 놓고 감겨있다. 미안하지만 두가지만 실례. 조그만 가지들을 머리에 꽂고 월계수라 불렀다. 정상을 정복한자 만이 꽂을 수 있는 월계수……

참으로 통쾌하다. 올라갈땐 얼마나 초라 했었나. 다리가 말을 안들어서 킁킁대던 생각을 하니 꽤나 통쾌하다.

한참을 내려오니 아까 그 절위 계곡으로 흐르는 물이 바로 최초의 식수가 된다. 그곳엔 많은 등산객이 거의 밥을 지어 먹고난 뒤였다.

시간은 오후 3 시.

갑자기 배고픔에 시달린다.

식사가 끝난뒤엔 날이 더 추워지는것 같아. 마음을 조였다.

생음악!

만돌린이 연주되고 자연과 음악과 그리고 모두가 위대해진다.

우리도 같이……

그러나 더 위대한것이 자연인가

더 강한 것이 자연인가.

우린 추위에 약해지고 하는 수 없이 하산을 서둘렀다. 모두들 추운가 보다.

다른이들도 하산을 시작했다.

저녁놀에 눈부신 차창의 붉은빛의 위력도 잠깐.

차창밖의 해는 서산에 숨고

질어지는 땅거미

떠날때의 기쁨만큼이나 자연을 멀리하며 거대한 도시의 우울한 생활터전으로 접어드는 착잡한 마음. 오늘의 산행이 더 없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아름다운 천연색 자연의 순수한 마음이 늘 같이하기를……